



2022년 6월 첫째주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19-22

찬양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412장)

1.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는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속에서도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헬라어로 식구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만나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교회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허물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교회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CPC도 거룩을 추구하며 세워져 가야 합니다. CPC와 함께 지어져 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